

옛 도청 복원 '완전체 ACC'... 명실상부 아시아 문화 허브로

옛도청 복원 공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마무리될 듯
광주 자산 문화적 트렌드로 반영해 콘텐츠 생산해야
새 전당장 공모 진행...전문성 등 갖춘 인사 선임

ACC 개관 10주년 성과와 과제

<하> 새로운 10년 토대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난 2021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별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후 아시아문화원과과의 통합, 전당재단 설립 등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며 새롭게 출범했다.

아특별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종료 시한이 오는 2028년으로 5년 연장되면서 조성사업 성패는 향후 가시적 성과를 얼마나 높이는가에 달려 있다. ACC 운영 활성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이 핵심 과제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연계해 ACC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ACC는 아시아 전 권역과 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국제 교류 플랫폼을 주도해왔다.

ACC의 외부적인 평가는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한국적 전통과 현대적 미를 갖춘 문화전당 건물에 대해 "ACC 자체가 브랜드"라는 호평도 잇따르고 있다. "코리아 유니크 뷰",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됐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늘마당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후식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그러한 예다.

하지만 전체 문화전당을 하나의 유기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엄밀히 말해 ACC의 온전한 개관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ACC 5개원 가운데 민주평화교류원(옛 도청) 복원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화계 관계는 "옛 도청 복원이 마무리되면 처음으로 ACC가 완전체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 나아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도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옛 도청 개원과 맞물려 광주 자산을 문화적

트렌드로 반영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 10년간 민주평화교류원이 문을 닫고 있었던 탓에 지역의 문화자산을 오히려 구현하는 데는 제약이 따랐다.

ACC 건립 당시 상정했던 교류, 조사·연구, 창작,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활성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초 아시아중심도시 핵심 거점시설로 전국,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문화발전소 구축을 그렸지만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별도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역점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체부 종합계획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총 5조2912억원 가운데 국비 3조2700억원, 지방비 7896억원, 민자 1조2316억원이다. 조성사업 예산 투입 현황(2004~2024)에 따르면,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에 국가의 직접 예산 투입은 91.8%였다.

반면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은 총 사업비 3조4019억원 중 9311억원이 투입돼 27.3%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비는 1조3807억원 중 30.6%인 4237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지방비는 7896억원 가운데 35.7%인 2825억원이, 민자는 1조2316억원 가운데 18.3%인 2249억원이 투입 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적 환경 조성은 중앙과 지방 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국가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ACC 자체만으로는 아시아문화조성이라는 전체 사업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 임기가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전당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문화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계약상태, 대통령 탄핵 등과 맞물려 새 전당장이 선임돼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 인사는 "이번에 선임되는 신임 전당장은 지난 10년간을 평가하고 향후 ACC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발전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안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ACC가 제작한 '나는 광주에 없었다' 공연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헌재,尹 탄핵심판 변론종결 여부 미지수...추가기일 지정 아직

증인 신문 뒤 당사자 신문 최후진술 등 마무리 수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을 한 차례 남겨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12일 "이번 주 변론 종결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주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현재 예정된 변론이 없다. 현재까지는 증인들을 불러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신문이 끝나면 통상 피소추인에 대한 당

사자 신문과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고 심리 마무리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에 앞서 추가 증인 신문이나 증거자료 제출 요구,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으로 변론 기일이 추가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헌재 공보관은 "13일에 변론이 종결된다면 이후에 피청구인 측 최후진술 등을 듣기 위해 기일이 더 잡힐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정해진 게 아니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8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부르기 위한 별도 절차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13일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

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기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 공보관은 증인 신청 취지에 대해 "강 실장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박 소장도 신 본부장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인사들에 대한 구금 장소 관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까지 판사 출신으로 현재 파견 부장연구관을 지낸 전병관 변호사를 비롯해 김지민·배진혁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해 총 22명이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무장관 대행 "‘명 황금폰’ 분석 끝나면 김여사 소환"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명태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

에 대해서는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명태군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 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여론조사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군 특검'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최소한 제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길 36